

‘행복주택’ 공급 물량·전용면적 모두 줄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15% 수준으로 급감
임대주택 실적도 저조…청년·신혼부부 ‘울상’
정준호 “2030세대 주거 불안 해소에도 도움 안돼”

윤석열 정부 들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건설형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전 문재인 정부 15% 수준으로 급감했고 청년 행복주택의 경우 평균 전용면적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입 임대주택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윤석열 정부가 표방했던 2030·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행복주택의 수도권 공급 호수가 윤석열

정부 이후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신혼부부 계층을 상대로 한 행복주택의 공급호수는 수도권 기준 2019년 3천829호, 2020년 4천674호, 2021년 8천205호로 문재인 정부 기간 차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6천347호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1천236호로 공급 호수가 대폭 줄어 들었다.

청년 계층을 위한 수도권 행복주택의 공급 물량 역시 현저하게 감소했다. 수도권 기준 2019년 6천340호, 2020년 5천566호, 2021년 6천213호, 2022년 6천191호 등 평균 6천호 이상의 공급 물량을 유지해 오던 청년 행복주택 역시 2023년 911호로 공급 물량이 지난해의 15%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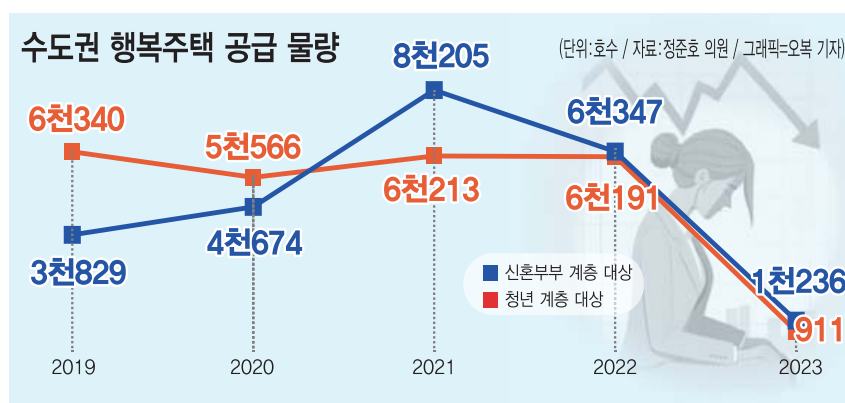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존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이 ‘통합 공공임대’로 재편돼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22년도 수도권 지역에 공급된 통합 공공임대 중 신혼부부와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물량은 모두 합해 500호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공급된 수도권 신혼부부, 청년 대상 통합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전무했다. 이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최초 공급되기 전 국토부가 발표한 ‘통합공공임대 공급기준’ 중 청년(보호종료아동 포함) 11%, 신혼부부 7%와는 괴리가 있는 수치다. 이러한 급감 추세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업 계획 승인 자체



가 줄었기에 착공 역시 감소한 것이라며 의도를 갖고 공급 물량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저조한 사업 승인 실적은 정부가 분양과 매입 중심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무게 추를 옮긴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올해 주택도시시기금 예산안에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출자 계정이 7천억원 감액되는 반면, 분양주택 등 지원(원자) 계정

은 6천억원 증액됐다.

공급 속도가 느린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 매입 공급하는 형식의 매입 임대주택 현황 역시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LH는 올해 정부로부터 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인 5만3천500가구의 70%를 배분받은 상황이지만 6월말 기준 목표치의 4% 수준인 1천576가구 매입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남은 하반기 동안 3만5천여호를 매입해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아울러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전용면적 증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반적인 공급 물량 뿐만 아니라, 전용면적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유형 매입 임대 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은 2019년 24.4㎡, 2020년 25.1㎡, 2021년 26.5㎡, 2022년 27.0㎡로 증가해 왔으나 2023년 24.9㎡로 2.1㎡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022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1인당 주거면적 32㎡에 못 미치는 수치다.

정준호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물량마저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주거 면적까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2030 세대의 주거불안 해소와 저출산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하 기관들이 약속한 정책 목표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공작의혹 제기에 폭력사태까지…선 넘은 與당권레이스

韓 “원희룡 지지자들 계획 난동”…元 “우리 지지자인지 확인 안돼”
‘韓 끌어내리기 모의’ 소문에…친윤 “유폐자·배후 고소” 강경 대응

국민의힘 당권경쟁이 후보들 사이의 도를 넘은 비방전에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이 겹치며 위험수위까지 올라왔다.

원희룡·한동훈 후보는 전날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을 두고 16일 책임 공방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는 TV조선 유튜브 채널에서 원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당원이 한 후보 지지자에 의자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는 데 대해 “저희 지지자인지 다른 지지자인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는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원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했다”는 발언을 했다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거더라”라고 말했다.

자신과 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는 데 대해선 “자꾸 상호 충돌 내지는 상호 비방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거

티브를 하나라도 한 게 있나”라고 되물으며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마타도어적 충돌이 겹치며 위험수위까지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맷글팀)’을 운영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원 후보는 맷글팀 의혹이 민주당에서 제기됐던 ‘드루킹 사건’과 닮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당시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했던 것이 정권을 빼앗기게 된 단초였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있는데, 이를 한 후보가 제시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에 빗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원 후보는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나온다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우리당을 분열시키고 당정 충돌 일으키기 위한 방향으로 몰고 가게 된다면 여권·보수 전체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원희룡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 후보는 “맷글팀이든 뭐든 제가 관여하거나 부탁하거나 의뢰하거나 한 게 전혀 없다”며 “자발적인 시민들이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마치 부당한 것이고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정치가 맞나”라고 맞받았다.

후보자 간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 후보가 대표로 선출될

경우 친윤(친윤석열)계가 당 대표의 ‘조기 낙마’를 모의하고 있다는 이른바 ‘삼일천하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설도 속칭 ‘지라시’(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적는 쪽지)를 통해 돌았다.

지라시에서 모의 당사자로 지목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이 같은 소문을 허위 사실로 규정, 유폐자와 배후를 고소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연합뉴스

안도걸, 강민수로부터 ‘5·18’ 사과 받아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6일 열린 강민수 국제정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논문을 작성한 강 후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 안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가 참고한 논문 중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5·18 운동’으로 12·12군사반란을 12·12사태로 표현한 논문도 있었다”면서 치우친 정치적 성향에 대해 엄중 질책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논문 작성

당시) 생각이 짧았다”며 “논문으로 인해 다시 한번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안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상기시키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요구했고, 강 후보자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추후라도 의심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수기자

조계원, ‘가자지구 지원결의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사진)이 16일 9개월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한 ‘민간인 피해자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대규모 민간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을 당장 중지하고 1993년 오슬로협정 정신으로 복귀할 것 ▲2023년 12월 유엔이 통과시킨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결의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더는 가자지구의 비

극을 외면하지 말 것 ▲대한민국 국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에 위한 어떠한 인도주의적 행동도 망설이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가자지구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을 향한 인류애를 요구받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